‡ 중국산 꼬리곰탕 당분간 군급식 지속

(사)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의 꼬리곰탕 군급식 한우부산물사용 요청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관련 규정 수정 및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또 꼬리곰탕용 원재료는 국내산이든 외국산이든 제한을 두지 않은 채 가격 경쟁력이 앞선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입장을 덧붙여, 한우협회가 맹비난 하고 나섰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단순히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이유로 중국산을 군급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군장병의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는 처사라는 것.

또 방위사업청에서는 중국산과 한우간의 가격차이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어 어떤 근거로 한우협회에 답변문서를 보냈는지도 알 수 없다는게 협회측의 주장. 다만 한우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군급식의 공급가격은 kg당 약 3천71원이었고 한우 사골제품의 원가는 kg당 약 4천원으로 3% 마진을 붙일 경우 4천120원으로 약 1천50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 한우 등록 두수 증가추세

한우 등록 두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우 등록 시 비등록우 보다 약 15만원의 가격 차이를 보이며 혈통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조병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한우두수는 46만1천495두로 전년 36만2천374두에 비해 2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종축개량협회와 농협중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경매시장에서 경매된 한우등록우 가격은 암송아지 2백43만9천원· 수송아지 2백34만원으로 비등록우 암송아지 2백32만5천원· 수송아지 2백14만9천원 보다 암송아지는 11만4천원, 수송아지 19만1천원이 각각 높게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사료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현재 더욱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밝혀졌다.

‡ 성별 실거래 고기생산량 추정식 개발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은 브랜드 단체와 유통업체 및 국가에서 한국고기의 생산량을 추정하고 수급조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우도체의 실거래 고기 생산량을 성별로 계산할 수 있는 식을 개발하였다. 이번에 개발한 거래 정육량 추정식은 한우도체로부터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고기 생산량을 추정할 수 있어 직판점이나 가맹점 등 일괄경영시스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국가단위에서는 한우고기의 수급조절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성별로 추정식을 설정하여 암소, 거세우 및 수소 등 취급하는 품목에 따라 실제 거래되는 쇠고기량을 산출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발된 거래 정육량 추정식은 축산과학원 부설 도축장에서 시험 도축한 2천여두의 한우도체를 해체하여 측정한 고기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였으며 계산에 이용한 요인으로는 도체중(kg), 등지방 두께(cm), 배장근 단면적(㎠)의 3개 요인을 대입하여 계산하는 다중회귀방식이다. 도체등급 판정표만 있으면 판정표에 기재되어있는 3개 요인의 성적을 대입하여 누구든 쉽게 생산량을 계산할 수 있다.

축산과학원의 이중문 박사는" 이번에 설정된 계산식의 적합도(R2)는 유통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한우암소=0.97, 수소=0.92, 거세우=0.94, 한우전체 0.94) 분석되었다"며" 앞으로도 생산여건 및 출하체중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 개발해 생산 및 유통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